

사람보다 소가 많은 마을에 청년들이 몰려온다

Cover Story

'청년마을' 이 성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

전북 장수는 전라남북도 통틀어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다. 인구 2만 명에 소가 3만 마리. 사람보다 소가 많은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곳에 2020년 젊은 부부가 이주했다. 부부의 눈에 띈 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장수의 특수한 지형. 주민들에게 산은 지역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었지만, 트레일러닝(산악마라톤)을 즐기는 부부에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다.

부부는 직접 달리기 코스를 개발했고, 트레일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회를 열었다. 일본 등 해외에서 단체로 참가 신청을 할 정도로 빠르게 소문이 났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 활력을 잃어가던 장수에 지난해 4000명의 외지인이 다녀갔다.

정부의 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도 꿈쩍하지 않던 지역들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전국 곳곳에 조성해 온 51개 '청년마을'이 변화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즐거운 곳에 청년이 모인다'는 명확한 비전을 내세운다. 청년이 지역에 살면서 관계와 비즈니스를 만들고, 또 다른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방식이다. 선정된 청년마을에는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전문가·학계·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마을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정리했다.

첫 번째 조건: 지역 자원의 창의적 재해석

75%가 산지로 이뤄진 장수에는 산악마라톤을 테마로 한 청년마을 '트레일 빌리지'가 있다. 김영록 락앤롤 대표와 아내 박하영 디렉터가 장수의 험준한 지형에서 산악마라톤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시작됐고, 지금은 전 세계 러너들이 찾는 트레일레이스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보은에는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라이딩을 테마로 하는 청년마을 '라이더타운회인즈'이 조성됐다. 김한솔 공동대표는 "마을 근처에 있는 피반령은 충청권 라이더들에게 유명한 라이딩 코스"라며 "피반령을 내려온 라이더들이 반드시 회인을 지나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라이더타



운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문 닫은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라이더들의 이지트 '라이더 유치원'을 만들고 라이더들을 위한 카페도 열었다. 라이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아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힐러스 페스티벌'이라는 모빌리티 축제도 개최했다. 인구 1600명의 작은 마을이 연간 수만 명이 다녀가는 '라이더 천국'으로 탈바꿈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마을이 지속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지역 자원의 창의적 재해석'을 꼽았다.

청년마을 멘토단장인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는 "단순히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는 안 된다"면서 "남들이 외면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새롭게 그려내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조건: 관계를 만드는 기술

지역에서 청년들이 섬처럼 홀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역에 발을 디고 있는 한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호흡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와썹타운'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촌강스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강원도 흥천의 청년마을이다. 와썹타운을 운영하는 김성훈 업타운 대표는 "2021년 흥천에 정착한 이후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다. '노인과 바다'라는 이름으로 일년에 두 번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다로 놀러가고 민체육대회, 어버이날, 설추석 등 모든 특별한 날을 주민들과 함께한다. 김 대표는 "지역에 정착한다는 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의 문화, 전통, 모든 것에 녹아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마을의 활동과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김한솔 대표는 "오토바이 소음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주민들도 있었기에 라이딩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지역에서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했다"고 했다.

청년마을 자문위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는 "지역에서는 비즈니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민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우주선을 띄우는 최첨단 기술도, 애플의 비즈니스 전략도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 녹아드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조건: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행정조직

청년마을은 ▶청년조직 ▶행정조직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주제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청년조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청년마을의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행정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다.

황종규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행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청년마을 사업은 다른 삶을 꿈꾸며 지역으로 들어간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중물' 같은 사업"이라며 "청년마을 사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행안부)의 마중물 사업이 끝난 뒤 지방소멸의 당사자인 지방정부(지자체)가 이어받아 지원하는 명확한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 3편 '청년마을'로 계속



우리 곁의 기부자들... '더기버스50' 2차 명단 공개

파이워크 '더기버스50' 선정 한국의 기부자들 추가 10명 발표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50) 2차 명단이 오늘(12일) 공개됐다. 권오준·김도훈·김민서·김용성·김윤정·김지훈·남도형·오성삼·최병기·최성환 등 10명이다. '더기버스50'은 유명 인사나 초고액기부자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기부를 실천해 온 우리 주변 위대한 기부자들을 조명하는 프로젝트다. 더버터와 비영리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워크(Pie Week)'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매년 50인의 기부자가 '더기버스50'에 등재된다.

파이워크 참여단체들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종 50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공개한 기부자는 20인이다. 남은 30인은 파이워크 캠페인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 지면을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기부자 선정 시에는 ▶지속성 ▶태도 ▶스토리 ▶영향력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발성 기부보다는 꾸준한 기부를 중요하게 보며, 기부 금액은 많지 않아도 된다. 기부에 대한 태도와 철학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기부자가 가진 고유의 스토리, 주변에 미친 영향력 등도 주요 평가 기준이다. 그 외 연령·성별·직업·기부 분야 등에 대한 다양성도 고려한다.

한편, 올해 진행되는 '2025 파이워크'에는 총 23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한다.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부스레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컴패션, 한국해비타트,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홀트아동복지회(이상 단체명 가나다순) 등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파이워크 캠페인에 동참한다.

문일요·최지은 더버터 기자

▶▶ 8편 '더기버스50'으로 계속

Inside

비영리의 다음 단계는 사람에 대한 투자	C2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인터뷰	C3
기후위기와 맞서는 탄자니아 커피농가	C4
공익법인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	C5
SC제일은행 임직원이 봉사에 진심인 이유	C6
복지사각지대 여성가장 1700명을 돕다	C7
'한국의 기부자들: 더기버스50' 선정자들	C8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비영리의 다음 단계는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인터뷰

비영리 활동가들의 공간인 ‘동락가’의 운영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동락가는 지난 2019년 이준용 DL 그룹 명예회장이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에 기부한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이다. 이듬해 다음세대재단이 비영리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초기 비영리조직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다.

지난달 28일 동락가에서 만난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공간이 생기니까 사람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더라”며 “지난 5년은 공간이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방 대표는 비영리 업계의 사람과 조직,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금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기반조성기부’다. 활동가들이 머물 수 있는 ‘제2의 동락가’를 찾는 동시에 비영리 업계의 인적 역량 강화에 지원하는 기부자를 찾고 있다.

“‘기반조성기부’라는 개념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수도·전기·고속도로 등 사회의 기반시설을 생각해 보세요. 기반조성을 할 때 특별히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기반조성은 모두를 위한 일이기요. 비영리 생태계의 기반조성은 공익활동의 기반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비영리 생태계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우려는 거예요. 사람과 조직, 그리고 공간. 결국 이 셋에 대한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부 요청을 할 때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엔 대부분 예의상 듣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고, 참여 방법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크래프톤 공동창업자인 김강석 기부자처럼 비즈니스에서 혁신을 만들어냈던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지만 저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할 겁니다. 기반조성기금은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이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문제라고 하시면.

“기부금을 받으면 보통 사업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그램이 세상을 바꾸진 못 한다고 봐요. 현상을 잠시 치료할 수



지난달 28일 만난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이끌게 된다”며 “비영리에서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했다. 김용재 기자

는 있지만 본질은 그대로 남죠. 반면에 사람에 대한 투자, 조직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세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명으로 시작한 비영리스타트업이 점점 성장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사회공헌이나 기부자들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 비영리 생태계의 구조는 아직 프로그램 중심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현장의 단기적 필요에 집중돼 있고, 기부금 사용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사람과 조직, 인프라를 키우는 데 쓰이

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세대재단이 주도하는 기반조성기부 캠페인 ‘에버래스팅 프런티어’는 이러한 관점을 전환하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해외에는 비영리 기반조성에 기부금을 투입하는 사례가 꽤 있다. 윌리엄 휴렛 전 HP CEO가 출연한 ‘프로스페라 기금’은 전 세계 여성재단을 지원하되 오직 재단의 자체 역량 강화에만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테면 리더십 개발, 모금 역량 강화 워크숍 등에 비용을 쓰는 것이다.

“어느 업계든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비영리스타트업을 지난 5년간 발굴했습니다. 비영리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와 본인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의미 없다’는 수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문제 해결에 약간은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했다면 이미 인재입니다. 그들을 도와 솔루션을 탁월하게 만드는 일을 다음세대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에 아직 숨은 보석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런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 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습디다. 환경·여성·복지·인권·평화 등 이슈에 몰입한 사람들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대로라면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현재 한국의 공익재단 중 기반조성에 집중하는 곳은 극히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기부금 중 기반조성기부 비율과 집행이 극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은 확장성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조직 하나를 키우면 그 조직이 훨씬 큰일을 해냅니다.”

“그런데도 사람과 조직에 투자하는 기금은 왜 부족할까요.

“기업이나 개인 기부자들이 이런 종류의 기부제안을 받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만나온 성공한 기업가들이 하는 말이 ‘기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때, 정작 이렇게 비영리 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기부를 제안 받은 적은 없다’고 해요. 사람과 조직, 인프라에 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깊이 공감하고 진지하게 검토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양성’이라고 봐요.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가 쓰이는 방식도, 그 내용도 훨씬 다양해져야 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형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런 기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기부자들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기부의 방식에도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이 바로 기반조성기부라는 걸요. 이런 기부문화가 생기면, 기부자는 단지 돕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일요 더버터 기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 달라진 현장을 읽어라

제2회 ‘넥스트CSR포럼’ 17일 개최

기업 사회공헌의 미래를 모색하는 ‘넥스트CSR포럼(Next CSR Forum)’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열린다.

넥스트CSR포럼은 기업이 전문성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더버터가 주최하는 행사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이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라면 누구나 강연을 듣고 토론과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다.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에서는 ‘달라진 현장’을 다룬다. 현시점에서 위기 아동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조명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혜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청소년, 영케어러의 최근 실태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오혜정 교수,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과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가 기업 지원을 통해 경험한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달라진 사회공헌’이다.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국내 아동청소년 사회공헌의 현황과 특징’을 100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분석해 설명한다. 패널 토론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상현 행복나눔재단 본부장과 이의현 사단법인 점프 창립자가 패널로 나선다. 두 명의 전문가가 한우재 교수와 함께 최근 달라진 미래세대 사회공헌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그룹별 주제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모든 참가자가 4인 1조로 미래세대 사회공헌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자율 네트워킹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포럼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 페이지(bit.ly/nextcsrforum2)에서 할 수 있다. 문은 ‘넥스트CSR포럼’ 사무국(02-3789-7863)으로 하면 된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시간	내용
14:00 - 14:10	행사 소개
(세션1) 달라진 현장	
14:10 - 14:30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달라진 것들 - 자립준비청년·다문화청소년·영케어러를 중심으로 오혜정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4:30 - 15:00	패널토론 : 당사자들이 말하는 변화의 경험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오혜정 교수 (모더레이터)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15:00 - 15:10	휴식
(세션2) 달라진 사회공헌	
15:10 - 15:30	국내 아동청소년 사회공헌의 현황과 특징 - '100대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15:30 - 16:00	패널토론 : 미래세대 사회공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상현 행복나눔재단 본부장, 이의현 사단법인 점프 설립자, 한우재 교수 (모더레이터)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세션3) 토론 및 네트워킹	
16:00 - 16:30	그룹별 주제토론 및 발표
16:30 - 17:30	자율 네트워킹
17:30	폐회

알립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에 기부하세요

기후위기, 고령화, 지역소멸, 그리고 사회 양극화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사회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일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발이나 비판을 넘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추적하는 보도는 여전히 드물습니다. ‘더버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실험과 실천 사례를 조명하고 기록합니다.

더버터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여정을 함께 만들어갈 기부자를 모집합니다. 기부금은 전액 취재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생물다양성·로컬·문제제기(장수사회)·마음건강·가정밖청소년·다문화가정·은둔고립청년 등 기부자가 지정한 주제에 따라 현장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해법을 탐색합니다. 뜻의 참여가 솔루션 저널리즘을 지탱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기업·재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02-3789-7861 solutions@thebutter.org

청년마을, 'K-로컬'의 거점이 되다

▶ 1면 '청년마을'에서 계속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대학·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타부처 정책을 청년마을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표준협회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최이호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장은 “청년마을 사업의 목표는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마을 운영단체를 지역 기반의 건강한 청년단체로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조건: 외부와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앵커(anchor)’가 필요하다. 지역을 처음 접하는 외지인을 환대하고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는 거점을 뜻한다. 전국에 있는 51개 청년마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청년마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지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속적으로 지역을 찾는 ‘관계인구’로 성장할 수 있다.

2021년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된 충남 공주의 ‘자유도’가 대표적이다. 공주 원도심인 중학동에 있는 1960년대 도시 한옥을 마을호텔로 리모델링해 지역의 일상을 체험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지역을 더 깊게 만나고 싶은 청년, 잠시 머물며 로컬의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마을호텔에 숙박하며 인사이트 트립, 워크스테이, 로컬디자인 등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서울이나 부산이 아닌 지역의 소도시를 탐방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아떨어진다. 최이호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장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슬램덩크의 배경지인 가고시마나 오키나와의 외딴섬까지 찾아가는 것처럼,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역시 서울 너머 ‘진짜 한국’을 경

전국 청년마을 51곳 선정 현황



험하고 싶어 한다”면서 “청년마을이 ‘K-로컬’을 이끄는 작지만 강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조건: 일과 삶의 통합

청년마을의 본질은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삶의 지속가능성에 있다. 전충훈 대표는 “도시에서는 일과 삶이 분리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일과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비즈니스를 하든 활동을 하든 결국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역으로 간 청년들도 단발적인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대표는 “장수는 아내의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고향이자 얼마 전 태어난 우리 아이의

고향이 됐다”면서 “함께 재미있게 달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보은의 청년들은 라이딩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들을 모아서 축제를 열고, 축제에서 만난 방문객을 다시 관계인구로 확장하는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 김한솔 대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건 결과가 금방 나오는데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면서 “3년 쯤 하니 조금씩 결과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종규 교수는 “주류의 삶 대신 지역을 택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일은 지역을 살리는 일종의 공공투자”라며 “지역에서 살아가며 변화를 만드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새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이 즐거운 곳에 청년이 모여든다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인터뷰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재미있는 ‘세일즈’를 하고 왔어요.”

지난달 29일 만난 전충훈(51) 마르텔로 대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해 한국의 ‘청년마을’을 세일즈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국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만들며 즐겁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교포분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자녀들이 한국 가서 관광지나 대도시 말고 청년마을에 가 보면 좋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진짜 깊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전 대표는 사회혁신 기획자다. 이력은 무척 특이하다. 20대에는 지역 비영리단체 사무국장으로 공익활동을 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총괄책임자로 매년 25개 팀을 키웠다. 대구 북성로 사회혁신클러스터를 기획·운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회혁신 대표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0년부터 3년간은 행정안전부 혁신추진과장으로 ‘어공(어쩌다공무원)’ 생활을 했다.

행안부의 ‘청년마을 사업’에는 초기 기획 단계에 참여했다가 올해 다시 청년마을 ‘멘토단장’으로 컴백했다. 2025년 슬로건은 ‘청년마을 리부트’. 본질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세일즈에는 성공했어요. “교포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청년마을을 경험하고 싶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기회가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김용재 기자

되면 행안부와 함께 해외에 한국의 청년마을모델을 이식하는 것도 추진해 보려고요.”

“해외에서 관심 갖는 나라가 있네요.”

“대만도 관심이 많아요. 대만은 서쪽에 비해 동쪽 지역이 덜 발달했어요. 대만에 가서 청년마을 사업도 소개하고 대구 북성로 이야기도 해줬어요. 원래 일본을 벤처마킹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청년마을 이야기를 듣더니 무척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점요.”

“일본은 ‘지방 창생’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인구를 인위적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써요. 지방 소도시에 살면 월 20만 원씩 그냥 주니까 부작용이 많죠. 한국의 청년마을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들어가 각자 스타일대로 재밌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신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한국 청년마을의 출발점이지요.”

“일본과는 방향이 다르네요.”

“결국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인구도 늘어난다는 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살고 있는 사

람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가서 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청년마을을 전파하는 이유는요.”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서요. 우리가 좀 괜찮거든요(웃음). 해외 사례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를 배우러 오고 우리 것도 수출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청년마을 사례 중에 몇 가지 소개해 주세요.”

“강원 홍천의 ‘와셋타운’은 ‘합한 농촌’ 컨셉으로 MZ세대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전북 장수를 산악마라톤의 성지로 만들어버린 젊은 부부 이야기도 재밌죠.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미쳐있다는 겁니다. 몰입이죠.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주위들은 것, 잘 모르는 걸로 하면 망합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조성된 청년마을은 51개다. 올해는 처음으로 청년마을 대표들을 위한 ‘전문 멘토단’이 꾸려졌다.

“멘토단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관리자나 감독자가 아닌 조력자와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비즈니스에 관한 것만 멘토링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태도나 자세, 경험과 지식도 함께 멘토링해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년마을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청년들에게 지역 활성화의 짐을 지워선 안 됩니다. 청년마을의 목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것, 살아남는 겁니다. 이들이 살아남는다면, 청년마을은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겁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칼럼

균형발전과 청년마을



최이호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장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좋은 일자리, GTX 개통과 같은 빠르고 촘촘한 교통망의 발달로 수도권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하드웨어 사업’이 수도권으로의 구심력을 해체할 수 있을까? 만약 수도권, 특히 서울로의 구심력을 어찌할 수 없다면,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행안부가 내놓은 답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도 사람이 살아야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목포에 정착한 외지 청년들은 지역의 문제와 가능성을 함께 탐구하며 단기간의 실험적 공동체 ‘팬텀마을’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관광 콘텐츠,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살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시도했고, 이를 모델 삼아 행안부가 설계한 사업이 바로 ‘청년마을’ 사업이다.

지난 7년간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51개의 청년마을이 생겨났다. 청년마을 사업을 ‘로컬 창업’ 사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목적에 충실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가 충북 보은의 청년마을 ‘라이더타운 회인’이다. 충북 청주와 보은 사이, 피남령이라는 고개가 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이 25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곳이다. 여기에 유턴 청년과 외지 청년이 함께 라이더타운 회인을 만들었다. 라이더를 위한 삼점, 지역 특산품인 대추차를 주요 메뉴로 하는 찻집, 독립서점, 지역 주민과 라이더들이 함께하는 축제 등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청년마을의 목표는 단순한 ‘정착’이 아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곳,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청년마을에 청년이 모여들어 정착하면 좋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으로의 구심력에 비해 지역으로의 원심력은 너무 약하다. 청년마을의 성과 지표도 ‘정착인구’가 아닌 ‘생활인구’(한 달 기준 세 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내진 못했다. 행안부의 청년마을 사업이 ‘마을 만들기’라는 본래의 취지와 철학을 지켜나간다면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기회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일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탄자니아 커피농가들이 기후위기와 맞서 싸우는 법

굿네이버스, 기후위기 대응 농업혁신 실험

비가 와야 할 시기가 지나고 있었다. 농민들은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봤다. 작년에는 건기에 비가 내려 물난리가 나타나 올해도 날씨는 오락가락이다. 작황은 전년 대비 또 줄었다.

“커피나무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전 못 버티겠다고.” 1997년부터 탄자니아 남서부 음보지에서 커피를 재배해 온 가브리엘 카타우네카양(43)은 기후변화를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수십 년간 마을의 생계를 책임지던 커피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데, 상황은 매년 나빠져만 갔다.

탄자니아 음보지 지역은 전국 커피 생산량의 약 16.6%를 차지하는 커피 주산지다. 최근 이곳 커피 농가들은 생존을 위한 변화의 길목에 섰다. 기후위기로 인해 우기와 건기의 경계가 무너지고, 병해충이 급증하면서다. 그간 고지대의 서늘한 기후 덕분에 아라비카 원두 재배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혔지만 최근 몇 년간 강수 변동성 증가, 기온 상승, 잦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 농법에 의존하던 소농가들의 생산량은 2018년 1만2752t에서 2021년 1만441t으로 약 20% 급감했다. 새로운 농법이 필요했다.

“기후는 달라졌지만, 농사법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양게는 마을의 많은 농민이 여전히 부모 세대의 방식대로 커피를 키운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땅을 일구었지만, 지금은 그 방법으로 버틸 수 없는 때가 됐다”고 말했다.



탄자니아 음보지 지역의 커피생산자조합원들이 커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병해충 피해 여부와 열매의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 굿네이버스]

가난한 농민에 먼저 닦친 기후위기

기후위기의 직격탄은 가난한 소농에게 먼저 도달했다. 기후위기가 지속하면서 생산량은 줄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농자재값은 크게 올랐다. 천수농업에 의존하던 커피농가는 돈이 없어 새로운 품종을 들일 수도, 비료를 살 수도 없었다.

“예전엔 9월이면 시작되던 비가 이제는 11~12월에야 옵니다. 우기와 건기가 뒤섞였고, 병충해는 더 잦아졌습니다.”

음보지 지역의 커피생산자조합 ‘MbilibnoAMC OS’의 음코마카타나상과(47) 사무국장은 “생산량이 크게 줄었는데, 농민들의 수입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23년부터 기후위기에 강한 커피나무를 농가에 보급하고, 기후스마트농법(CSA) 교육, 관개시설 구축, 금융지원 등 지역사회 지원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3년간 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됐다.

굿네이버스는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소농들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농업 생산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난 4~5일 제주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도 기후위기 심화로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되기도 했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예측하는 것인데 기후위기가 그 일상을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들의 일상을 복원하고 소득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기술 보급을 넘어 역량 강화와 인프라 구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커피생산량은 2021~22년 시즌 7만 7400t에서 2022~23년 시즌 6만 9000t으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이번 2024~25년 시즌에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9만t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위기에 강한 품종 개발, 희망을 심다

품종 개량은 농가의 생존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커피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다. 탄자니아 국립커피연구소(TaCRI)는 지난 수년간 기후위기 환경에 대응하는 다양한 커피나무 종자를 개발해 왔다. 수확량을 끌어올리고 병충해와 가뭄에 강한 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연구소는 현재 19종의 개량 품종 개발을 마쳤다. 지역마다 기후의 특징이 달라 다양한 종을 개발하고 해당 지역에 맞는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다. 품종별로 병해충 저항성과 수분 요구량이 다르고, 재배에 적합한 해발고도도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TaCRI는 지역 농가에 맞는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또 농가에서는 종자 선택과 함께 재배 방식까지 새롭게 배워야 한다. 대표적으로 ‘TaCRI 3F’ 품종은 실험 재배에서 1헥타르당 연간 5050kg의 원두를 수확했다. 이는 전통 품종인 ‘N39’와 비교해 5배 이상 높은 수확량이다. 질병 저항성 등급도 높이고 커피 품질도 유지했다.

문제는 종자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농부들이 새로운 기술과 종자 도입을 꺼린다. 자칫 농사법을 바꿨다가 실패하면 온 가족이 가난의 굴레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국가 예산이 부족해 대량으로 나무를 키워 지역 농가에 전달할 길이 막혀있다. 농부의 마음을 돌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다.

박해성 굿네이버스 지역개발팀장은 “새로운 접근과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농부

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는 건 아니다”라며 “일부 용기를 낸 농부들이 몇몇 나서면서 개량 종자의 보급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마을마다 생산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돕고, 조합 단위에서 묘목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해성 팀장은 “마더가든(mother garden)으로 불리는 양묘장을 각 조합에 마련하고, 이곳에서 개량종자를 받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양묘장에서 6개월 정도면 10~15cm 높이의 작은 묘목으로 성장하는데 이때 야외 농장에 옮겨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나무는 묘목을 심고 2~3년 정도 지나야 첫 수확이 가능하다. 생산량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7~8년. 나무를 심은 지 12년이 지나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상품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나이든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기후위기에 강한 새로운 종자를 심는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올해 음보지 지역에만 15만 그루의 개량 품종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그렇게 보급된 나무는 누적 20만 그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금융-인프라, 기후생존력 높이는 솔루션

묘목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굿네이버스는 농민들에게 ‘기후스마트농업(CSA)’ 기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병해충 통합관리(IPM), 빗물 집수, 혼농임업, 토양 보습 등 네 가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728명의 조합원이 교육을 받았다. 조프리 마페사(37) 굿네이버스 CSA 지도 담당자는 “농부들이 실제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중

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량된 품종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배하게 되면 농가 생산량이 3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굿네이버스는 커피 농사 전문 달력을 만들고, 리드파머(Lead Farmer) 제도도 도입했다. 리드파머란 이웃 농가에 기술을 전파하고 마을 단위의 ‘현장 교사’ 역할을 하는 핵심 조합원이다. 굿네이버스는 커피 생산자조합원 중에서 총 40명의 리드파머를 선정해 주민 주도의 농업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소액대출 기반 영농투입물 지원 프로그램’은 조합이 공동구매를 통해 영농자재를 확보하고, 수확 후 판매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순환형 금융 지원 제도다. 현재 419명의 조합원이 참여 중이며, 향후 조합이 기금을 인수해 자립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관측을 지원하는 마케팅위원회 운영과 금융 교육을 통해 조합원의 판매 역량도 강화했다. 또한 커피 저장고, 가공시설(CPU), 수분계·전자저울 등 품질 관리 장비를 지원해 가공·유통 과정의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김선 본부장은 “과거의 개발협력은 일방적인 도움의 차원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공동 생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리카 커피농가의 수확량이 지속적으로 줄면 머지않아 우리의 커피 값도 오르게 된다”며 “문제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했다.

문일호 더버터 기자



탄자니아 음보지의 이툼피(Itumpi) 지역에서 진행된 관개시설 건설 현장. 오른쪽 사진은 커피 농부들에게 양질의 농자재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 굿네이버스]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됐다. 김종길 한양대 지속가능경제학과 교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김현대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이사장(왼쪽부터)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용재 기자

공익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윤호중 의원 등 6인 라운드테이블

5일 국회서 '공익 3법' 전문가 토론 주식기부 확대, 공익목적 투자 등의 논의

“공익법은 사실상 공익활동을 막는 법이다.”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 공익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기부금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거나 이미 받은 기부금조차 기부금품법과 공정거래법, 부처별 규정에 따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이라도 소관 부처나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공익이 아닌 수익 사업’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도 있다.

새 정부 탄생을 계기로 제3섹터에서는 ‘공익법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논의를 거쳐 가시화된 법안도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주제인 ‘공익 3법’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 상향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 ▶공익목적 투자 확대를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상 ‘공익위원회법’) 제정안 등이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공익법인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지난 1월 공익목적 투자 확대를 위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두 법안의 발의도 준비 중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종길 한양대 지속가능경제학과 교수, 김현대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 이사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가나다순) 등 학계·현장·법조계 리더가 참석했다. 공익전문 미디어 더버터의 김시원 편집장이 참석해 라운드테이블 전체 토론을 진행했다.

현행 공익법은 ‘브레이크만 달린 차’

▶김시원(이하 김)=라운드테이블에서 주로 다룰 세 가지 법안 즉 공익법인 주식기부 확대, 공익목적 투자 허용, 공익위원회 설치는 각각의 목적도 있지만 함께 연결될 때 더 큰 변화를 만든다. 이 세 축을 짚으며 공익법인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윤호중(이하 윤)=새 정부 2일차에 공익법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서 다행이고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토로 하는 ‘기본사회’를 이루는데 있어 공익법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공익위원회법은 20대 국회부터 이번에 세 번째 발의다. 초반에는 공익법인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엄격하게 구성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공익법인 활성화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무게를 둔 법안으로 바뀌었다. 오늘 논의할 법안 중 발의 안 된 두 개의 법안도 곧 제출을 완

료할 예정이다.

▶김=현행 공익법 제도의 문제점부터 짚어보자.

▶이희숙(이하 이)=쉽게 말해 공익법이 공익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기부를 받기는 어렵게, 받은 돈은 잘 쓰기 어렵게 해놨다. 면세 요건이 까다로워 기부해도 증여세를 내야하거나 기부받은 자산은 공익목적 투자나 용자 등 ‘운용’ 자체가 어렵다. 공익법인 재원은 오로지 기부금만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해놓고, 받은 돈조차 사용자 등 단순 회계적으로만 따지고 적발한다. 목적이나 성과보다 천편일률적인 회계 법칙으로 따지는 것이다. 선진국 상황과는 정반대다. 독일·스웨덴은 주식 기부 비율 제한이 없고, 미국과 일본도 의결권 없는 주식 기부의 경우 각각 35%에서 50%까지 면세다.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투자, 용자 등 자산 운용도 대부분 허용된다.

▶김종길(이하 종)=기부금은 시민사회에 피를 돌게 하는 ‘대동맥’인데, 법이 혈관을 꼭 막았다. 선진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국내법까지 중복 규제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까지 허용하는데, 상증세법에서 추가 규제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풀 때가 됐다.

▶김현대(이하 현)=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은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공익법인들의 공익목적 투자는 거의 제로(0)에 가깝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국사회연대기금과 행복나눔재단 정도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투융자 자체가 설립 목적인데 소관 부처가 투자는 커녕 용자조차도 ‘수익 사업’이라며 막아버린다. 설립 당시 받은 자금 외 추가 기부금 유치도 쉽지 않다.

▶황영기(이하 황)=공감한다. 특히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문제다. 현행법은 장학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선복지만 공익사업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분명한 공익활동인데 법적으로 아니다. 투자나 용자를 금지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의견에도 동의한다. 글로벌 자선재단 자금 30%가 상장지수펀드(ETF)에 들어가 있다.

다른 나라에선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영리하게 운용해 재무적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고, 다른 조직에 투자해 생태계 자체도 키워내는데 우리는 못한다. 지금은 시속 300km를 달릴 수 있는 차를 사고 날까 봐 50km 이하로만 달리라고 말하는 꼴이다.

▶윤=20대 국회부터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공익활동 관련 현행법 대부분이 규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공익활동은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인데, 민간인이 왜 나서느냐’ 하는 권위적인 시대, 과거의 산물이다. 지금은 국민이 정부보다 빠르게 사회 문제를 포착하고, 정부 활동까지 감시하지 않나. 공익관련법도 독려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약용 사례를 적발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공익활동도 ‘기업가정신’을 담는다

▶김=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먼저 상증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상증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첫째, 주식기부 면제 한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무 지출금을 다른 공익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결권이 없는 경우 30%까지로 상향하고, 일부 의결권을 갖는 경우 15%까지 늘린다. 두 번째는 공익법인이 자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인 프라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공익목적사업으로 인정된다.

▶김=주식기부가 우회지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이=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서 임원 임면이나 합병, 영업양도, 정관변경 등에 관한 권한만 갖는 범위 내에서 15%로 비율이 제한되므로 우회지배나 편법 증여의 수단이 될 가능성은 낮다.

▶윤=주식기부 면제 한도 상향은 이중규제를 없앤다는 관점으로 봐 달라. 상증세법의 면제 한도를 현행 공정거래법과 동일하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편법 승계 시에는 적발해 엄격하게 규제, 처벌할 것이다.

▶종=주식기부 확대,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투자 허용 모두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시대상에 따라 법을 바꾸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과거엔 활동가적 헌신성을 중시했다면, 요즘은 공익활동에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지 않나. 공익법인도 시장경제 사회의 조직이므로, 금융 도입을 환영한다. 미국에서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소셜 액션 비서관을 선임하고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강조했고, 영국도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에서 사회투자펀드의 운영을 중시했다.

▶황=정부의 복지제도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현장의 복지 수요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정부가 발견하지 못하는 틈을 빠르게 발견해 막는 게 민간이다. 상증세법이 개정되면 민간에 큰 자금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익법인 간 출자나 투융자가 가능하게 되는 점이 고무적이다. 영세 단체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단체들을 소위 ‘대기업’ 공익법인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시민 인지도가 있는 초록우산 같은 공익법인들이 작은 공익법인들을 키우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하버드대학은 75 조원을 운영하는 거대 해지펀드다. 별도 자산운용사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을 정도다. 글로벌 30대 자선단체의 47%가 임팩트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2%에 불과하다. 사회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공적 재원도 들어와야 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융투자의 길도 열려야 한다.

▶윤=실제로 이 법안들이 공익법인들에 고루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목적사업에 따라 공익법인들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부처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게 문제다. ‘공익목적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부처에서는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법을 논의하면서 공익위원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익위원회의 목적은 공익활동 활성화

▶김=자연스럽게 ‘공익위원회법’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다. ‘공익’이라는 말의 범위가 무척 넓은데, 이 단어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나 싶다.

▶윤=공익이라는 말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공익위원회’에서 해석하고 새롭게 규정해나가는 좋겠다.

공익위원회법은 개별 주무 부처, 기부금품법, 상증세법 등에 따라 분절된 관리를 받던 공익법인들을 총괄하는 ‘공익

위원회’의 설립을 담은 법안이다.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지원,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지금은 공익법인 설립은 까다롭지만 한번 설립하면 오히려 들여다보지 않는 구조다. 정말 공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하기보다, 단순 회계 규정만 맞추면 된다. 행정 불편 문제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되, 규제 위반 시 감독하는 게 골자다.

▶김=공익위원회법에 대한 현장 조직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황=공익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현장 조직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기부문화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관 주도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면 좋겠다. 공익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리업무를 다 가지고 와야 할 텐데, 그렇게 많은 인력이 없어도 효율적으로 꾸러질 수 있을 것 같다. ‘작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윤=이번에 준비 중인 공익위원회법은 관리나 감독이 아닌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함께 끌어올릴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한 결과가 공익위원회법을 만들면서 상증세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법이었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모두 장착한 제도로 된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다.

▶김=2시간여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익제도 개선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오늘 논의한 법안들이 단순한 규제 완화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부나 공익을 대하는 관점 자체를 ‘신뢰 기반’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종=현행법대로면 우리나라는 국가와 시장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 환경, 빈부격차 등 심화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제 새 정부가 말하는 ‘기본사회’다. 공익위원회법 제정과 상증세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황=이번 법 개정이 민간의 공익활동이 얼마나 중요하지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기부금품법 등 낡은 법률들을 다 고쳐가면 좋겠다.

▶윤=현행 공익법은 한편으로 매우 엄격해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옥죄면서도 실제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었다. 그걸 해결하자는 게 ‘공익 3법’의 취지다.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익법인 제도개선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

김용재 기자

정리=박선하 더버터 기자

SC제일은행 '재능기반 봉사활동'으로 청년·여성·장애인 돕는다

지난해 전 직원의 약 88% 자원봉사에 참여
고령층·미혼모·한부모가정으로 전문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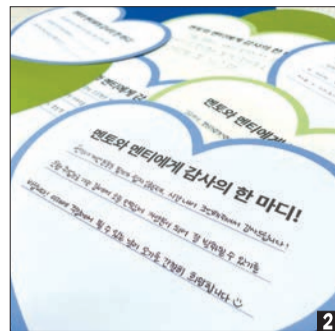
“예상치 못한 질문에는 진심을 담은 답이 최선입니다. 자칫 부정 이슈로 갈 수 있는 질문에도 대답은 긍정적으로 하고요.”

SC제일은행 임직원 30명은 지난달 13일 저녁, 전문 코치가 진행하는 ‘멘토링 사내교육’을 들었다. 익숙한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멘토’라는 새로운 역할을 준비하는 자리였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커리어 멘토링’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교육에서 참여자들은 예상 밖의 민감한 질문에 유연하게 답하는 법, 긍정적인 언어로 조인하는 법 등을 배웠다. 업무 일과를 마친 후 진행된 교육이지만 HR·마케팅·IT·리스크관리·금융영업 등 각기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원 참여해 학생들이 사전에 보낸 질문을 읽고 답변을 준비했다.

SC제일은행은 직무 전문성을 살린 멘토링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은행은 타 업종에 비해 직무 분야가 다양한 만큼, 영업·자산관리 같은 대면 업무부터 IT·인사·기획 등 다양한 부서의 임직원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멘토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성장과 보람을 모두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서울여대에서 진행된 멘토링 자원봉사 모집도 신청 당일 선착순 30명이 모두 마감됐다.

직무 전문성, 봉사활동 기반이다

‘재능 기반 봉사활동(SBV·Skills-Based Volunteering)’은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글로벌 사회공헌 전략이다. 전 세계 SC그룹 임직원들은 업무를 하면서 습득한 직무 전문성을 활용해 코



1 지난달 14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에서 열린 ‘대학생 커리어 멘토링’ 행사에 참여한 SC제일은행 임직원. 2 서울여대 학생들이 남긴 멘토링 후기. [사진 SC제일은행]

칭·컨설팅·교육·강의 등 봉사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침략 후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온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봉사를 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일자리로 연계된 사례가 특히 많다. 영국 법인회계팀에서는 네팔 환경 NGO의 재무관리 자문을 맡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 세계 SC그룹 임직원의 53%가 SBV 활동에 참여했고, 시간으로 따지면 누적 11만4276시간에 이른다.

SC제일은행은 2020년부터 다양한 멘토링과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매년 혼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자산관리 방법과 금융 용어를 설명하는 금융 상담 봉사에 나선다. 부서 단위로 활동하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HR과 금융사기대응부 직원들이 각각 ‘대학생 취업 및 진로 설정 방법’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금융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을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했다. 지난달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티로 참여한 이신희(경영학과 4학

년)씨는 “입행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맡은 행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현직자들에게 직접 긍정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여성 시니어 임직원들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간의 사회생활 경험을 발휘해 진행하는 ‘여성 리더십’ 멘토링도 2021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금융권 취업·창업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이 수시로 열린다. 2024년 기준 전 직원의 약 88%가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며, 총 1891.8시간을 SBV 활동에 할애했다.

임직원 만족도가 높은 이유

SBV 활동은 임직원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다. 단순한 봉사를 넘어 자신의 전문성을 되돌아보고 타인과 나누는 경험이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여대 멘토링에 참여한 김미란 SC제일은행 마케팅부 이사는 “학생들에게 내 직무를 소개하면서 나의 커리어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면서 “반복적인 일상에서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멘토링은 세대 간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김소정 SC제일은행 홍보부 대리는 “멘토링을 하다 보면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을 자세히 알게 되고, 효과적인 조언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다”면서 “이런 경험이 나중에 입사할 주니어와 소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직원 자원봉사 소식은 SC제일은행 사내보 ‘월간 사회공헌 뉴스레터’로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공유된다. 멘토링 봉사 현장 스케치와 임직원들의 참여 후기, 다음 프로그램 일정이나 자원봉사 트렌드, 개인적으로 봉사할 만한 기관을 찾는 법 등에 관한 정보를 담는다. 이희영 SC제일은행 사회공헌 팀장은 “봉사가 자연스러운 사내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자원봉사를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멘토링 자원봉사에 더욱 전문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임직원들이 사내 조직 ‘임파워 멘토스’를 창단했다. 다양한 연령대와 직무를 가진 40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멘토링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각 부서에서 멘토링 자원봉사 확산과 질적 향상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앞으로 고령층·미혼모·한부모 가정 등으로 멘토링의 대상과 전문성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기훈 SC제일은행 마케팅·커뮤니케이션그룹 부행장은 “SC제일은행은 청년·시니어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원의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재능 기반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많은 사람의 경제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지은 데버터 기자

과학 교실부터 안질환 치료까지... LG이노텍 ‘아이 중심’ 사회공헌 개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서울의 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생들이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자동차를 조작하며 도로 위 장애물을 피해 나간다. 현실과 동일한 움직임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체험하는 수업이다. AI 코딩 로봇을 활용한 축구 경기도 열렸다. 큐브형 로봇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면 각 팀의 로봇이 공을 움직여 대결을 벌이는 식이다. 눈앞에서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LG이노텍은 실제 산업 공정에 도입된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을 교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을 손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다”라는 아이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올해 LG이노텍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반을 개편했다. 키워드는 ‘아이’다. 기기의 ‘눈(eye)’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센서 등을 만드는 기업 정체성과 ‘아이(kids)’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연결했다.

대표 프로그램은 ▶과학인재 양성(주니어소나무교실) ▶아동 생활·문화 지원 ▶아동·청소년 눈 건강 증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니어소나무교실 참여 아동들이 시로봇으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사진 LG이노텍]

‘주니어소나무교실’은 2011년부터 이어 온 LG이노텍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생이 자율주행차, VR안경, 디지털 트윈, AI 등 최신 기술을 담은 과학 키트를 직접 만들며 원리를 익히는 체험형 수업이다. 지금까지 누적 참여 아동은 1만3000명에 이른다. 과학 이론에 흥미를 붙이지 못한 아이들도 “다음에도 꼭 하고 싶다” “방학 때 수업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교육은 온라인 이론 학습과 오프라인 실습을 병행한다. 지난해부터 전문 강사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수업을 도입했고, 올해는 메타버스 기반의 학습 플랫폼을 마련했

다. 사업을 운영하는 초록우산의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과학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과학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며 “더 많은 아이가 과학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화된 돌봄기관의 교실이나 생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학습 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47개 기관을 지원했다.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에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다

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야외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생필품을 기부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투명 우산, 안전 키링 등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기도 한다. 또 친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팝업북,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다이어리와 필통 등 학습용품을 제작해 기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안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검진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검사부터 입원, 수술까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성장기에 안질환이 발생하면 시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난치성 질환 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며 올해는 400명 규모로 지원이 이뤄진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주력 사업인 ‘광학’의 특성에 착안해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특히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키우며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일요 데버터 기자



자립마을 후원자에게 증정되는 스탱링. [사진 월드비전]

멈추는 순간, 변화는 완성된다

월드비전 후원기념 반지 ‘스탑링’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후원을 멈추는 후원’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스탑링(STOP Ring)’이라는 특별한 반지를 선보였다. 스탱링은 월드비전의 대표 캠페인 ‘자립마을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증정되는 기념 반지로, 단순한 지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자립을 완성하는 후원의 의미를 상징한다.

반지 앞면에는 일시정지를 뜻하는 ‘II’ 기호가 새겨져 있다. 마을이 자립하면 후원을 멈추는 ‘완결형 후원’을 의미한다. 월드비전은 후원이 지속되는 구조를 지양하고, 일정 기간 식수·보건·교육·생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을이 자립을 이루면 후원은 종료되며 후원자는 다음 마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연결 고리가 된다.

올해 자립마을 캠페인의 대표 지역은 잠비아의 물렌제 마을이다. 월드비전은 이곳에서 깨끗한 식수와 기초 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자립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 38개 마을이 자립을 이뤘고, 물렌제는 그 뒤를 잇고 있다.

자립마을 캠페인 담당자인 류다은 월드비전 과장은 “스탑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한 마을의 자립 여정에 함께한 후원자의 헌신을 기념하는 상징”이라며 “진짜 변화는 지속적인 지원보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데버터 기자

송파 세 모녀 10년... 복지 사각지대 여성가장 1700명을 돕다

바보의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우리엄마' 사업 10년의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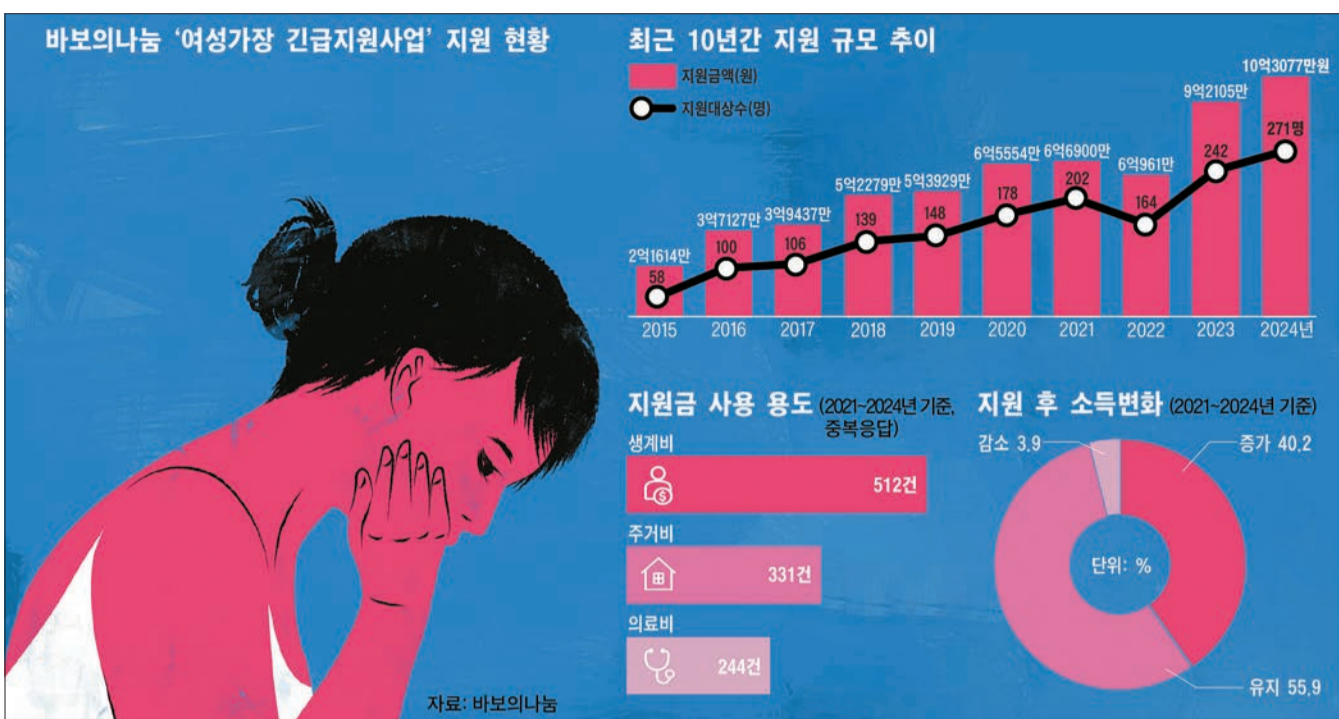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김지연(가명)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고등학생 자녀와 무작정 집을 나왔다. 어렵게 월세방을 구한 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서류상 혼인 관계인 남편의 채무 이력 때문에 탈락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일을 하기 어려워졌고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우연히 바보의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우리엄마'를 알게 돼 신청했다. 이번엔 자격이 될까 조마조마했다. 그리고 며칠 뒤 감씨 앞으로 5개월 치 주거비 400만원이 지급됐다.

주거가 안정된 5개월 동안 그는 건강을 회복했고 아르바이트도 구했다. 고3이 된 자녀도 취업반에 진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했던 시기에 선물처럼 주어진 지원 덕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퇴거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가장에게 신속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우리엄마' 사업을 지난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 긴급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시로 신청서를 받고 매달 심사를 진행한다.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한 달 이내에 최대 4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0년간 바보의나눔이 지원한 여성가장은 1671명. 지원금은 누적 62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밀린 공과금과 휴대폰 요금, 집세를 납부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

'우리엄마' 사업은 2014년 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밀린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건이다. 이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당시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89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389만7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대다수 여성가장들이 가사와 아이 돌봄,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이듬해 바보의나눔은 송파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가장들을 돕기 위해 '우리엄마'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부터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됐다. 별거 중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남편이 있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

우, 전 남편이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혼 후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경우, 부양 의무자로 등록된 자녀가 있지만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어 노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됐다.

신청자 수는 2015년 사업 첫해 86명에서 이듬해 168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바보의나눔도 지원 규모를 빠르게 확대했다. 1년 차에 58명이던 선발 인원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271명이 선정됐다. 지원 예산은 2015년 2억1614만원에서 2024년에는 10억3077만원으로 5배 가까이 확대했다.

현장에 맞춰 선정 기준 재검토

"오랜만에 아이들과 영화도 보고 간식도 먹었습니다. 꿈같은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밀린 학원비와 전기세, 휴대폰

요금을 갚았습니다."

"도움의 손길 덕에 작은 아이의 수술비에 밀린 월세, 공과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옮겨올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보의나눔이 2021~2024년 우리엄마 사업 지원을 받은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설문진행한 결과 응답자(576명)의 99%가 "지원이 자립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지출 내역은 생계비(512건)·주거비(331건)·의료비(244건) 순으로 사용 비중이 높았다(중복응답).

긴급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40.2%는 이후 소득이 증가했다. 장은영 동대문구청 복지지원팀 통합사례관리사는 "400만원의 지원금은 한 가정이 3~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생활비"라며 "잠시 얻은 여유 덕분에 여성가장들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자리를 구

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보의나눔은 지난 10년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대상자 선발 기준을 수정해 왔다. 사업 첫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일시적 위기'를 겪는 이들을 지원했지만, 이후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심사 기준을 조정하고, 무직의 여성도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제외하던 기준도 없었다. 최원길 바보의나눔 나눔사업부장은 "정부 지원을 받는 수급자도 상황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배제하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하게 되는 셈이어서 유연하게 기준을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서는 지원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원인과 지속된 기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노력, 긴급 지원금 사용 계획 등을 기술하며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한다. 대상자가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바보의나눔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미등록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난민 여성가장 신청자 9명 중 8명이 최종 지원을 받았다. 바보의나눔 상임이사인 김인권 신부는 "매달 전국에서 접수되는 신청서를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을 찾아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데버터 기자

"형편 되면 기부하겠다고요? 그 마음으론 평생 못 합니다"

일상의 기부자들 오성삼씨 인터뷰

오성삼(71) 전 건국대 교수는 인생의 고비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는 두 동생과 함께 보육원에서 지냈다. 며칠 뒤 선생님이 바다 건너 미국의 월드비전 후원자와 연결됐다고 했다. 공부를 곧잘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급했다. 스무 살,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월드비전에서 입학금을 지원받아 수업에 나갈 수 있었다.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마지막 학기 등록금도 후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인천 송도 자택에서 마주한 오 전 교수는 "이대로 주저앉을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어딘가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다"며 "그러다 마음속에 결심 하나가 생기더라"고 했다. "받았으니 돌려줘야 한다."

-당시에 어떻게 미국 유학까지 하셨나요.
"플로리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당시 대학 조교를 하면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조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주 정부 차원에서 그 혜택을 없앴어요. 외국인에게 혜택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요. 마지막 학기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오성삼 전 교수는 "인생의 고비마다 도움을 받았는데 평생 갚으며 살 것"이라고 했다. 김용재 기자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였나요.
"1000달러. 1970년대에는 환율이 낮았으니까 80만원 정도 했어요.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큰돈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유학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월드비전 미국본부에 편지를 썼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릴 때 지원을 받은 후원아동이고 미국에 유학까지 왔는데 마지막 학기 등록을 못 하고 있다고요. 1000달러를 빌려주면 한국에

서 교수가 돼서 이자를 충분히 쳐서 갚겠다고 했어요."
-답장이 왔나요.
"등록 마감 며칠 전에 등기우편이 왔어요. 그 안에 1000달러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았고, 마침 건국대에 채용 공고가 나서 교수가 됐어요."
-이자를 충분히 쳐서 갚으셨나요.
"등기로 온 수표를 복사해서 늘 서랍에 뒀어요. 갚아야 하니까요. 한국에서 돈을 모아서 월드비전에 전화해서 7배

로 갚았어요. 2000달러는 월드비전본부로 보냈고, 5000달러는 한국월드비전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을 도와달라고요."

-정기후원도 하셨다고요.
"한동안 잊고 지냈다가 IMF가 터졌죠. 그때부터 아동후원을 시작했어요. 3명으로 시작해서 6명, 9명, 12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렸어요. 월급이 오르니까요."
-몇 명까지 후원하셨나요.
"60명 정도 된 거로 기억이 나네요. 퇴직하면 정기후원도 중단하려고 했는데, 마침 송도고등학교에서 교장을 모집하는 거예요. 퇴직일이 2012년 8월 30일인데, 또 마침 교장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남들 은퇴할 나이에 월급을 받게 됐으니 정기기부를 크게 늘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금이 상당하겠습니까.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줄이더라도 끊지는 않으셨네요.
"후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세상을 떠나는 날 후원이 종료

되지 않을까요. 인위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후원받던 소년이나 후원하는 어른으로 성장한 거네요.
"보육원에서 지낼 때는 잘 몰랐어요. 미국에서 편지와 함께 사진이 오갔고, 조그마한 선물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훗날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덕분에 잘 컸다고요."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 시카고에서 미시간으로 기차를 타고 갔어요. 역에 내리는데 후원자 부부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양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 금방 알아봤겠

죠.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래피즈라는 마을이었는데, 하루 그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아련해요."
-기부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렇지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고비만 넘기면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끝내 기부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돕는다는 건 지금 자기 형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가능한 거예요. 지난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형편 따지면서 기부하려고 했으면 못 했을 겁니다. 지금 기부를 고민한다면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문일요 데버터 기자

나눔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한 기부자들 이야기



2025 파이워크 페이지 바로가기



배구를 사랑한 소년, 유소년 꿈을 응원하다
권준원 후원자

올 초 KYK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권준원 선시안 대표는 프로배구를 좋아하던 학생이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일찍이 컴퓨터를 다루는 데 흥미를 느낀 권씨는 대학 재학 중에 게임개발사를 설립했다. 3년 전 출시한 배구 게임은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1억1000만 명, 올해 매출은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배구 팬들의 열렬한 반응 속에 성장한 게임은 그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뭐까?” 답은 기부였다. 배구 유소년을 지원하는 KYK재단의 활동이 눈에 들어왔다. 한 부모가정에서 자라며 주변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는 그였다. “어린 시절의 저처럼 간절하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혀가는 위기 현장을 기억하는 법
김도훈 기부자

“전쟁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전 세계에서 관심과 지원금이 쏟아집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멀어지죠. 여전히 현장에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대구에서 산업용 펌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도훈 기부자는 올해로 14년째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전 세계 위기 현장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수단과 미얀마의 난민들을 위해 기부를 했다. 수년째 내전과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김 기부자는 회사가 위치한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서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15년부터는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정기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김 기부자는 “기부를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면 자꾸만 더 하게 된다”면서 “모든 분이 작게라도 꼭 한번 기부를 실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비 쪼개 아이들 돕습니다
김민서 기부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어린 시절이 겹쳐졌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나의 모습과 닮았거든요. 연결되는 것 같았죠.”

김민서씨에게 기부는 삶을 이어가는 동력 중 하나다. 가난한 유년 시절,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쳤고, 어렵사리 대학 문턱도 넘었다.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을 버티며 아끼고 아끼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컨설파월드와이드**에 정기후원은 유지했다. 일평생을 생계에 쫓기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후원을 중단했다. 그러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서 후원을 재개했다. 후원 중단 1년 만이었다. 현재 김씨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가 있다. “아이들을 살리는 데 제 손이 닿아 있다면, 그걸로 됐죠. 마지막까지 계속하고 싶어요.”



제품 팔리는 만큼 기부합니다
김용성 기부자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김용성 기부자는 첫 제품을 출시하기 전 기부 계획부터 세웠다. 생산한 제품의 10%는 무조건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함께하는사랑발** 정기후원을 병행하며 앞으로 나올 신제품 나눔까지 계획하고 있다. “처음부터 기부를 사업 구조 안에 포함했어요. 기부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회사의 지속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했어요. 기부는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런 다짐을 가족과 친구, 직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렸다.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자기 다짐이었다. 김 기부자의 꿈은 회사를 더 성장시켜 공익재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조용히, 오래 기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공한 기업인들과 13년째 고객기부
김윤정 기부자

지난 22년 동안 글로벌 물류기업 씨스테인웨그로지스틱코리아를 이끈 김윤정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직책이 있다. 2013년부터 맡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고객후원자 모임 ‘탑리더스’ 회장직이다. 경영 일선에서 바쁜 와중에도 김 대표는 회원들과 아동, 미혼모를 후원하고 매년 여름에는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지금까지 김 대표의 진심 어린 활동을 지켜본 10명 이상의 기업인이 탑리더스 활동에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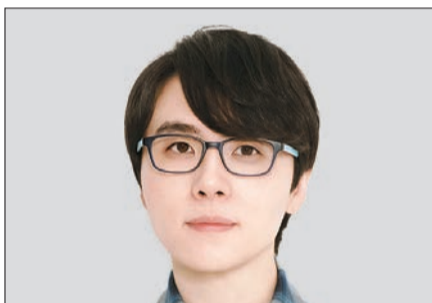
김 대표의 회사도 매출 148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돌아켜보니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주변에서 받은 사랑 덕분이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언젠가 반드시 사회에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요.”



우리 가게 메뉴판엔 ‘기부’가 있어요
김지훈 기부자

“고기 먹고 기부도 하세요.” 대전 대덕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지훈 기부자의 가게에는 늘 ‘후원 신청서’가 준비돼 있다. 손님들이 이 신청서를 작성해 **밀알복지재단**에 월 1만원 이상 정기후원을 시작하면 매달 고깃집에서 쓸 수 있는 5000원 쿠폰을 발송한다. 가게 오픈 전부터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온 그는 지인들에게도 늘 기부를 권한다. 지금까지 그를 통해 후원에 참여한 기부자는 65명에 이른다.

김 기부자는 사회복지사 출신이다. 지역복지관에서 일한 9년 중 5년간 후원 업무를 맡았다. 가게 운영은 그의 또 다른 나눔 방식이 됐다. 한 달에 두 번은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의 식사를 위해 고기를 기부한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한다. 김 기부자는 “기부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 스무 명의 아이들 둔 성우
남도형 기부자

13년 전, 막 신인 티를 벗은 시절이었다. 남도형 성우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녹음을 마친 후 자꾸만 그곳의 아이들이 생각났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굿네이버스**를 통해 차드에 사는 한 아이 후원을 시작했다. 매월 3만원을 보냈다.

기념할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후원 아동을 한 명씩 늘려갔다. 이제까지 연결된 아동은 총 20명. 이 중 6명은 스무살이 넘어 자립했고, 지금은 14명을 지원하고 있다. 방 한편에는 그동안 아이들이 보낸 편지가 모두 보관돼 있다. “처음 받은 편지가 아직도 생각나요. ‘저는 후원자님 덕분에 행복해요. 후원자님도 이 편지를 받고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자마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나눔을 하면 제가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세 번의 도움, 일생의 기부로 갚습니다
오성삼 기부자

오성삼 전 건국대 교수는 “기부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힘든 누군가를 볼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오며 세 번의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첫 번째는 아버지를 여읜 초등학교 시절 보육원에서 미국의 월드비전 후원자와 연결되면서였다. 두 번째는 스무살 대학 입학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월드비전이 학비를 내줬다. 마지막은 미국 유학 시절 마지막 학기 등록금이 없어 미국월드비전 본부에 편지를 썼더니 등기우편으로 수표가 도착해 무사한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 그때 약속했다. 이자를 몇 배 쳐서 갚겠다고.

월드비전 정기후원은 IMF 때 시작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인건 송고도 교장직을 맡게 되면서 후원을 이어갔다. “기부는 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계속되는 거죠.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유치원생 2000명과 함께 해 온 ‘나눔 수업’
최병기 기부자

신촌몬테소리유치원 최병기 원장은 매달 아이들에게 4장의 ‘미션 쿠폰’을 준다. 아이들이 방 정리하기, 엄마 안마해 주기 같은 일상 속 작은 미션들을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부모님은 500원을 준다. 그렇게 모은 돈은 **한국컴패션**을 통해 각 반에서 결연한 해외 아동에게 전달된다. 지난 17년 동안 2000명 넘는 아이들이 이 교육을 통해 나눔과 감사의 가치를 배웠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도움을 받던 나라였잖아요.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요.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결연 아동에게 편지가 오기도 한다. 아이들도 그림을 그려서 답장을 보낸다. “졸업할 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이런 작은 마음이 언젠가 큰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장학금, 다음 세대에 돌려줍니다
최성환 기부자

한 달 7만원이면 잠자리를 해결하고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 경기도 파주시 농촌 마을에서 서울로 유학 온 최성환 기부자는 도에서 운영하는 장학관(학숙) 장학생으로 선발돼 대학 공부를 무사히 마쳤다. “그 시절 장학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응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IMF로 경기가 어려운 와중에도 삼성에 취업했다. 2009년에는 컨설팅 회사를 창업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아대책**에 재산의 일부를 유산기부 형식으로 전달했다. 대학 시절 머물던 경기장학관과 경기도민회에는 매년 장학금을 전달한다. “기부는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나눌수록 제 삶도 단단하고 건강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도운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게 정말 좋은 사회가 아닐까요.”

2025 파이워크 참여 기관

